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2)

- 황종연 목사 / 2002. 6. 14 -

어떤 하나의 일을 경험한 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교훈이나, 좋았던 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나 다음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토론해 보는 것을 우리는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오랜 선교의 경험을 하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단체의 책임자 그리고 현장을 다니며 선교를 위하여 돕는 사역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준비된 선교사야말로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합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그가 왕자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백성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아닌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가 된,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가 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로 4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을 디도서 2:12절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훈련”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절제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품는 첫 번째 단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함으로 살고”라는 말씀대로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담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담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사상,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등 내가 누구인지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려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으로 살고”라는 말씀으로 이웃과의 “관계훈련”입니다. 선교사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식과 문화와 삶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자리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터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든, 저는 자요, 눈먼 자요, 귀신들린 자요, 문둥병이 걸린 자라도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자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자라도 일절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의로움으로 대하는 관계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과의 “신앙훈련”입니다. 선교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끝없는 소모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곧 한계를 드러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고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생수를 얻듯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신앙훈련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